

전후 70년의 일본사회

: 외부자 Outsider 의 내부자적 관찰 Inside Look

전후 70년 맞는 일본사회는 역사를 반성하는 기운이 약화되면서 ‘내향(内向), 우경화’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업고 정권여당이 된 자민당은 과거에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전후 레짐의 탈각’이라는 목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가시적 또는 표면적 성과에도 힘입어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도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전후 70년을 맞아 아베 정부는 새로운 담화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담화 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이름을 <21세기 구상위원회>라고 지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침략’이라는 말이 들어갈지 아닐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은 전후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서점가에는 ‘반한, 혐한’ 책이 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고, 선정적 주간지와 타블로이드 신문에서는 ‘한국 폄하’로 장삿속을 톡톡히 챙기고 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각기 다른 시기에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일본의 대학에서 가르치며 또한 생활자의 입장으로 일본 사회의 내부를 체험해온 재일한국인 연구자 포럼의 멤버 5명이 모여 ‘외부자의 내부자적 관찰’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일 시 2015년 4월 25일

토 론 박정진 (쓰다주쿠대학 국제관계학과 준교수)
서정근 (야마나시현립대학 국제정책학부 종합정책학과 교수)
이인자 (도호쿠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준교수)
이홍천 (도쿄도시대학 미디어정보학부 준교수)
황성빈 (릿쿄대학 사회학부 미디어사회학과 교수)

장 소 호세이대학 보와소나드 타워 502호실

| 전후 70년 일본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황성빈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한 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란 재일한국 인이고, 다른 분들은 90년대 이후에 일본으로 유학 와서 일본대학에 자리를 잡아, 지금은 가르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좌담회 주제는 '전후 70년을 맞는 일본사회'라는 아주 큰 주제입니다. 지난 2014년 6월호 『일본공간』에 실린 한국인연구자포럼의 좌담회 주제가 보수 우경화였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사회에 어떤 중심이라고 할까, 주류라고 할까, 보통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바꾸어 말하면 사회의 동향과 인식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본사회의 동향에 대해서는 '내향(内向き), 우경화'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2년 12월 총선거 때 자민당이 압승을 했다고는 하는데 총 득표율로는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권 여당이 된 자민당은 과거에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게 '전후 레짐의 탈각'



황성빈(黃盛彬) 릿쿄대학사회학부 교수

이라는 목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아베노믹스의 가시적 또는 표면적 성과에 힘입어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도도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다음으로 전후70년이 되는 올해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사회의 여론 동향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를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회의 부제는 '외부자의 내부자적 관찰'입니다. 오늘 좌담회

에 참석한 분들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외부자의 시선으로 이 사회를 관찰하고 경험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험 속에서 일본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셨는지, 또 올해 일본 사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사회를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간단히 각자 연구에 대해 소개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죠.

이인자 저는 91년 3월에 일본에 왔습니다. 석사, 박사도 전공은 문화인류학이고요. 박사과정을 마치고 2000년에 도호쿠대학에 전임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는 10여년, 그 다음에 교육자, 연구자로서 16년째 들어선 것 같아요.

오늘 좌담회 주제가 사회의 중심, 또는 주류의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연구로 만난 사람들은 철저하리만큼 일본 사회의 주변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 때 재일교포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주로 재일교포의 생활 문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지요. 즉 재일 교포를 차별받고 핍박받는 피해자로 보는 관점을 조금 접어 두고 이주자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주를 하면 뿌리째 뽑혀 이식된 삶인데 그들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보존하며 또한 정착지역의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라는 그런 아주 순수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재일교포를 보는 연구자는 거의 없었기에 저는 이단자였죠. 한국에서 와서 재일교포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재일교포의 편이 되어 차별문제를 더 심도 있게 다루고, 그러면서 재일교포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연구를 기대하던 시대였기에 연구를 도와 주시면서도 제 연구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일교포에 관한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도 있지만, ‘보편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조용히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다른 지역이나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이들과 비슷한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 라는, 그 지역의 사람들과 연결지어 사는 재일교포를 표현하는 것이

戰後70 日本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재일교포가 세운 묘라든지 그들의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고향, 그리고 그들의 정착 과정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한 행위 등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지금은 쓰나미 피해지역에서 살고 있던 한국인 여성분을 위문차 갔던 것이 인연이 되어 피해 지역의 복구 과정을 민족지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피해지역에 들어가 보니 지금까지의 연구와 달리 고향을 떠난 경험이 없는 분들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아 왔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보자니 이들이 왜 이주자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보게 된 계기가 된 점은 아주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사회를 볼 때에 중심에서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주변자들을 통해서 일본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진 저는 한국에서 북한정치를 전공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관계를 하고 싶어서 일본으로 왔고요. 북한으로 유학을 갈 수 없으니까요. 일본에서 유학을 시작한 것은 2002년이었습니다. 2002년은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갔고, 김정일 위원장과 평양선언을 발표한 해입니다. 북일관계에서는 큰 전환점의 시기이죠.

다른 한편에서 이 시기 한류 붐이 피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용준 윤사마(ユンサマ), 김정일 쇼군사마(將軍様) 이 두 사마(様)가 TV, 신문, 잡지, 그리고 지하철 광고에 이르기까지 미디어를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선언 후 납치문제가 크게 부상하면서, 북한문제는 단순한 붐이 아니라 신드롬에 가까웠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에는 북한 특설란이 생겼고, NHK어린이 프로그램에 김정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제 연구주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 만큼 충격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학위를 마친 시점도 여러모로 극적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직감할 수 있었죠. 그 변화는 2013년 일본에 다시 돌아오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 내 한반도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혐한론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납치를 둘러싸고 전개되던 일본 내 북한론은, 납치문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존재감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던 셈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들이 두 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변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또는 일본인의 변화는 이른바 ‘우경화’라는 단어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말이죠.

하지만 막상 이 ‘우경화’라는 단어로 통해 일본에서의 체험하고 있는 변화를 생각하면, 뭐랄까요. 약간의 위화감이 느껴지는데요. 가까운 예를 들자면, 일본이 우경화 되었다는 징후로서, 한국의 언론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을 거론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되는 사항이 ‘일본의 군사적 대응 범위를 규정해오던 주변 사태’라는 표현의 삭제입니다. 일본이 드디어 글로벌 수준의 군사활동을 펼치게 되었다는 논리이죠. 하지만 당초부터 이 ‘주변’이라는 표현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997년 가이드라인 책정당시부터 자위대의 활동반경은 글로벌한 것이었죠. 그 뒤 약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표현마저 사라졌으니 ‘좀 더’ 노골적인 것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경화’라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죠.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느껴지는 일본에서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자면 변화보다는 오히려 일관성이 느껴집니다. 적어도 한국의 역동적인 변화에 비해서는 말이죠. 좀 전에 혐한론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과거 한류붐을 상기할 만큼 압도적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으로

戰後70 日本

대체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는 일본의 보수층들도 창피한 존재로 생각하죠. 물론 헤이트 스피치와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그런 책들을 사서 읽어 보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그러한 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혐한론의 발생시기를 보면 한류열풍이 시작되는 시점과 일치합니다. 한류와 혐한은 일종의 동전의 양면이었다고 봅니다. 좋은 싫든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한류는 일종의 불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혐한이 이야기되는 지금이 오히려 일상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류를 대신해 혐한불이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요.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한국사회가 '우경화'라는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일본의 변화라는 것이, 과연 현재의 일본을 제대로 보여주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본의 변화를 직시하기보다는 희망 섞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일본의 미래를 예단하고, 거기서 일탈을 하면 크게 실망을 하는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황성빈 한 번도 좌경화 되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정진 일본의 변화를 가늠하는 데는 여러 분석적 지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경화’를 이해하면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아베 정권의 실적이 이를 알기 쉽고 선명하게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에 수반된 변화들을 분석적으로 보기보다 규범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일관계가 지금 역사문제로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으로서 씻기 어려운 역사적 감정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역사문제로 치환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진(朴正鎭) 쓰다주쿠 국제관계학과 준교수

서정근 네. 저도 동감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맞는 말씀도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올해로

55년째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만, 놀이기구를 타는 느낌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측으로 돌더니 또 좌측으로 돌고. 그래서 어디가 어디인지 아직 모르는 기분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우경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한국 사회를 뒤따라 가는 게 지금 일본입니다. 제 감각으로는요. 예를 들면 일본은 지금 나라 사랑을 외치고 국기를 계양하고 경례를 하고 국가를 부르죠.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도덕을 교과로 가르치고,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국어’라 합니다. 과연 한국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역사관을 젊은 세대에 똑똑히 가르치자고 하면서 2차 대전 이후 일본사회가 안 해왔던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동기화됐다고나 할까? 컴퓨터에서는 동기화 시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왜 그걸 안 좋다,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물론 침략을 당했으니까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냉정히 보면 똑같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 우경화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과연 언제를 기점으로 하는지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어릴 때부터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戰後70 日本

다. 아베 수상이 요즘 수상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태도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발상이었어요.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입니
다. 아까 황교수님이 한번도 좌경화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GHQ 점령 하에서 한 번 ‘제너럴 스트라이크(General Strike)’를 할 뻔 했
습니다. 그때 노동조합이 하도 강해질까 겁이나 탄압을 했죠. 그리고
일본 사회당 정권이 한 번 생겼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요. 그
이후로 일본 사회당이 야당으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발휘 했지만 정권
은 못 잡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일본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민당 내부에 야당보다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베 수상처럼 우파도 있고요. 자민당 안에는 다 있었습니까. 또 요
새 소위 리버럴 파가 힘을 과시 못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일본 국
내의 정치 세력의 구도가 좀 변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류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당시 “이런 시대는 다신 없겠구나”라
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이나 슈퍼나 어딜 가든 김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어릴 때는 마늘 냄새가 나면 뭐 먹었냐? 라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야키니쿠 집(숯불구이 식당)에 가서도 점심때는 비빔밥을 먹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마늘이 들어간 걸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경
을 썼어요. 그런데 한류 때는 한국다운 것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저는
그런 모습이 좋으면서도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재일동포 2세이기 때문에 1세들의 등을 보며 자라왔습니다. 이
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좀 늦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제 저는 3세, 4세들에게 등을 보여야 할 세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 제
아들한테 ‘왜 아빠는 동네에 친구가 없어요?’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
니다. 저는 동네 앞집, 옆집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2세니까 ‘일시
적 체류자’처럼 살았어요. 물론 그렇게 살라고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닙
니다. 하지만 선친께서 민족 교육을 받게 하셨고, ‘너는 앞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끔씩 하셨습니다.

이홍천 저는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일본에 왔는데요, 16년간의 일본 생활에서 느낀 것은 일본사회나 한국사회나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들자면 2002년에 9월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을 일본 미디어가 '납치자 몇 명 사망'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납치자 몇 명 귀환'이라고 보도했다면, 북일 관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미디어가 확일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북한과 납치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급증했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한번 만들어진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정부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1940년대의 미디어가 일본 사회를 전쟁분위기로 몰아간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되었을 때의 한국 언론의 반일 집중 보도입니다. 이런 보도 형태가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라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를 일본정부의 음모로 보도하는 등 지방 정부의 행위를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한국언론의 보도는 마치 일본 전체가 독도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일부분의 행위를 전체의 행위로 치부하게 만드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보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일본 언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 언급에 관한 것을 문제시 했습니다. 독도 방문 보도보다는 천황관련 발언이 집중적으로 부각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특파원들의 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천황관련 발언은 한국이 일본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어프로치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저항감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은 일왕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이 거론한 것에 대해서 자존



이홍천(李洪千) 도쿄도시대학 미디어정보학부 준교수

심이 상한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왕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패전국으로서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들이 지배했던 한국이 일본의 정신적인 부분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감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특파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서 매우 놀랐습니다만, 그들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4년도의 산케이 신문 기소건에서 일본 언론은 한국 사회가 가지는 언론의 다양성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한국 언론의 투쟁에 대해서는 조명하지 않고, 산케이신문의 기소건에 대해서만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지 못하고 언론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일본 외무성이 자사 홈페이지 게재된 한국에 대한 평가 부분을 변경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6년간의 일본생활에서 느낀 것은 일본 미디어 기능의 사회적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미디어가 반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사회 내 여론의 다양성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사회 내 다양성의 약화는 결국 일본 시민 역량의 약화를 반영한 것인데요. 미디어를 통해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시민 역량의 약화와 함께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교육의 획일화가 강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후 70년 아베담화에서 천황제, 그리고 일본사회의 공기(空氣)

황성빈 다음에는 아베 정권의 전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른바 아베담화에 대해 논의하는 일본 정부의 <21세기구상간담회>의 좌장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国際)대학장이 ‘일본의 역사가의 90퍼센트는 침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침략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지난 3월이었는데, 이후에도 아베담화를 둘러싸고 ‘침략’이라는 말이 들어갈 지 아닐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의 측근은 “피해를 입었지만 침략은 아니”며, “반성은 들어가지만 사죄는 아니”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2007년에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에 대해 사과(apology)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아베 수상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그 사죄를 받아들인다고, “I accept”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구한테 사죄를 하고 누가 사죄를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도된 거죠. 이 에피소드는 당시 아베정권의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이 문제가 그 후에 미국화(Americanization)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방문 때는 훨씬 계산된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를 ‘휴먼 트래픽킹(human trafficking)’의 피해자로 묘사하고, 의회 연설에서는 “통절한 반성”을 말했지만 “사죄”는 없었고, “아시아의 제국민에 고통을 준 사실”은 언급했지만, ‘침략’이라는 말은 담지 않았으며, 대신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戰後70 日本

힘을 기울인” 전후 일본의 행보에 대해 “프라이드”를 담았습니다. 1)

먼저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사죄’는 전후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구보타 발언’²⁾이 대표적입니다. 이후에도 일본 측의 식민지 지배에 관한 공식 담화의 표현에는 일관된 인식이 있는데, 한 번도 논리적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982년에 스즈키 수상이 ‘중대한 손해를 낸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침략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침략, 책임, 통감 이런 말이 나오는 첫 발언입니다. 1983년에 나카소네 수상이 전두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불행한 역사’가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였고. 그리고 1984년에 쇼와 천황이 전두환 대통령을 초청한 만찬회에서, ‘금세기의 한 시기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죄라는 말, 즉 ‘오와비(お詫び)’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1990년 가이후 수상 때이고, 그 다음으로 천황이 바뀌고 나서 현 천황은, ‘귀국의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고, 나는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통석의 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1992년 미야자와 수상이 ‘사죄하고 반성합니다’는 뜻으로 ‘오와비’에 ‘반성’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민당 55년체제의 막을 내린 호소카와 정권 때 ‘지난 전쟁은 침략전쟁’이라고 밝히고 그 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식민지배에 의해 모국어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징용 등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체험한 것에 대해, 가해자로서 마음으로부터 반성하며 진사(陳謝)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략’, ‘반성’, ‘사죄=진사’ 모두가 들어간 것입니다.

1)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 http://www.mofa.go.jp/mofaj/na/na1/us/page4_001149.html

2) 제3차 한일회담 당시 일본의 수석대표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郎)는 36년간의 식민지를 지배한 것에 대해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한국 측은 한일회담을 중단했고, 그 결과 약 5년 가까이 회담은 결렬됐다.

최고점은 무라야마 수상 때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의 한국 방문 때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깊은 반성의 마음’을 밝혔고, 이듬해 95년 무라야마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96년에 하시모토 수상도 ‘사죄(오와비)’와 ‘반성’이라는 말을 세트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998년 10월의 김대중 대통령과의 오부치수상의 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오와비’라는 말을 공식 문서에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때가 최고점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고이즈미 수상입니다. 고이즈미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에 간 것만 강조가 되는데, 실은 고이즈미 수상도 공식적인 성명으로는 굉장히 자세하게 호소카와 오부치 수준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간 나오토 수상도 2010년에 한일합병 100년을 맞이해 식민지 지배를 언급하며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거듭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고 조선왕조 의궤를 반환하겠다고 밝힙니다. 이상이 일본 측의 과거 역사인식에 대한 공식적 표명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명한 변화를 관찰할 수도 있지만 배후에는 일관된 흐름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간 나오토 수상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사죄의 표명은 없었고 이미 2000년대부터는 ‘사죄하는데 지쳤다(謝罪疲れ)’라는 말이 나오고 시민사회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적어도 대중적 여론의 수준에서는 이미 그런 의견에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후 70년을 맞는 올해에 수상이 발표하는 역사인식과 관련된 담화가 주목을 받는 것인데, 과연 일본 사회의 여론, 달리 말하면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한 번도 ‘사죄하는 일본인’은 일본의 대중적 여론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역대 수상의 역사인식과 관련한 공식 표명이 일본의 주요 신문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는데,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은 일본

측의 사죄는 언제나 한국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번의 사죄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강조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보수 정치인들의 ‘망언’으로 소동이 야기되면 다시 사죄를 요구하는 한국의 반발이 거듭 강조되었을 뿐입니다. 그 동안 사죄 표명의 최정점을 찍었던 수상들은 ‘불행’한 말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했거나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고, 일찍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라야마 씨나 간 나오토와 같이 수상직을 역임한 인물들이 조선일보 등의 게스트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이른바 일본의 ‘양심’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요 신문은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한 경우에는 매국노라고 하며 비아냥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최근 한 우익신문의 서울특파원의 칼럼은 세월호가 일본의 중고선이라는 사실과 엮으면서,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역할이 이미 끝난 ‘중고’라고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의 아베담화는 어떨까요. 이것이 모두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각자 전문적인 입장에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어떠신지요.

박정진 아베의 담화문제가 어떠한 내용이 될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베 담화의 내용보다 과정입니다. 수상 직속의 자문그룹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한반도 전문가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결정은 아베 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문그룹의 의견을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방향성은 잡혀있는 듯합니다. 이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표출할건가의 문제인데요. 제 느낌으로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있는 것 같고, 특히 한국의 문제제기를 최대한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시킨다는 전략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4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담과 5월에 있었던 미국 의회연설을 시험대로

삼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역사문제에 대한 아베의 발언 수위, 즉 ‘사죄’가 생략된 역사인식과 관련해 자카르타에서는 중국 측의 암묵적 외면을 이끌어 냈고, 워싱턴에서는 미국 측의 적극적인 찬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일종의 ‘네마와시(根回し)’라고 할까요. 자카르타의 아베 연설 초안은 사전에 중국 측에 전달된 상태였고, 워싱턴에서의 연설 내용은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에 발표될 아베의 담화가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정부가 얼마큼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아직 결과가 어떤 내용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미 한국외교의 존재감이 약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아베 개인의 역사인식은 이미 드러난 거 아닐까요? 수상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봉인 시켜왔습니다.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동안 한국의 문제제기 방식은 국제적인 압력으로서 외교력을 발휘해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면 아베수상이 담화에 어떠한 내용을 담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문제 제기는 허공에 주먹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흥천 박 교수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2014년에 일본의 보수적인 학자들이나 외교관들에게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인식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본 인식은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일본은 한국이 계속 비판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리액션(담화발표를 포함해서) 한 것이지 그 이상의 부분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자면, 일본이 주체적으로 반성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보수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본을 움직이는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한국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戰後70 日本

를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은 “일본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한국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이 보이지 않는 외교적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그 부분을 드러내서 선전하지 않았다”고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분과의 인터뷰 이후에 2015년부터 일본의 전후에 70년간의 활동을 강조하는 외교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1945년 이전보다는 패전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수적인 입장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지나치게 특정 입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베가 우경화 되어있는 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니깐요. 우익적인 정치가가 우익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특이한 뉴스가 아닙니다. 발언 자체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한국 사회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일본사회(일본정부)에 대해서 변화(반성)를 요구하는 단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내부적인 자기 각성 측면은 변화가 많았고 우리가 무시해 온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글로벌한 시점에서 한일 문제를 논할 때는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박정진 이 교수님 의견과 관련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견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아베 담화와 관련해서 문제는 아베 개인의 사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역사 인식을 어떻게 하면 일본 국민의 의견으로서 아베의 입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황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간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발표되는 과정을 보면, 가장 큰 전제는 상호 존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

부의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사죄의 표현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전후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을 적극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일관계, 특히 한국의 대응은 당시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의 당사자인 무라야마 전 총리를 한국으로 직접 불러서 아베 내각을 통절히 비판하는 것은 한국 국내적으로 통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는 있지만, 아베 담화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은 일본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매우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본 사회가 한국을 이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들도 일본 사회를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이 자기만족을 위한 비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메시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일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전략이 묻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성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동시에 대항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즉 일본어의 ‘세메기아이(鬨ぎあい)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사회의 변하지 않는 점을 얘기할 때 하나는 미국에 대한 친근감인데, 1950년대에 이미 미국에 대한 친근감이 7-80 퍼센트 정도입니다. 선뜻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잔혹한 전쟁을 몇 년 동안 하고서 맥아더에 대해 그런 환영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한 번도 서양, 또는 서구를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1950년대에 중국에 대해서는 7-80퍼센트가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친근감의 수준이 3-40퍼센트를 왔다갔다 하면서 한번도 50퍼센트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생 시절에 느꼈던 일본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조선을 좋아하는 사람과 조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한 젊은 유학생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인데, 50퍼센트의 벽을 넘었던 시기가 1998년 무렵에서 2000년대입니다. 김대중-오부치의 파트

戰後70 日本

너십선언이 발표되고 그리고 한일 공동월드컵까지, 그리고 나서 고이즈미 때 잠깐 떨어졌다가 2007~8년부터 올라가서 60퍼센트를 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후 쪽 떨어지는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일본사회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미국과 같은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즉 여전히 한국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역사 문제를 계기로 떨어진다, 올라가는 건 역사 문제가 아니지만 역사문제가 부각되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인데 저는 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한국의ダイナミック한 민주화 과정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반일’ 프레임의 부각과 동시에 반발로 바뀌기 시작하고,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그룹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다시 과거의 한일 관계를 그리워하는 담론이 출현하기 시작했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노골적으로 과거의 ‘친일한국’이 다시 나타난다는 기대감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를 부러워하던 세력들에게는 다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불러들이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98년부터 적어도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일본 사회 전체의 리스펙트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최근 7-8년간에 바뀌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정근 선생님이 말씀하신 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때 친근감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대통령의 개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납치당했기 때문에 일본인들 사이에는 그에 대한 빛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씨 구명 운동을 온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일본이었거든요. 김대중 씨는 민주화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또한 IMF를 겪으면서도 회

복을 했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회인데 한국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 이에 대해서 뭔가 동경은 아니지만은, 부럽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 조사 대상자들이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각적인 부분도

서정근(徐正根) 아미나시현립대학 국제정책학부 종합정책학과 교수

있죠. 그럼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인데, 저는 그 키워드를 일본인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과 일본국의 자존심이죠. 일본은 버블 붕괴까지 세계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미국의 뒤를 따라 계속 두 번째라고 하면서도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 그때거든요. 근데 붕괴가 났습니다. 붕괴 이후에는 '잃어버린 20년'³⁾이 지속됐는데 그 사이에 한국은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도 성장을 했죠.

아까 담화의 역사적인 흐름을 설명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에 듣기 좋은 말을 한 사람 중에 이른바 '우파'는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다고 하면 나카소네, 그리고 하시모토 수상 정도일까요? 고이즈미 총리도 그렇고, 나카소네 총리도 그렇습니다만, 총리가 된 사람은 밸런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수상의 역할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일본인의 대표이며 일본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본 국익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그것

3) 일본의 경제가 1991년부터 20년간 침체했던 시기를 말한다.

戰後70 日本

을 최우선해서 생각하는 것이 수상의 담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인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근대 시기의 역사 속에서는 한국에 대해 존경을 했었는데 자신들이 침략을 해서 종주국이 된 이후로는 한국에 뒤졌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죠. 비록 태평양전쟁에서 진 것은 미국에게 진 거지 아시아와 전쟁을 해서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상도 인정을 안 한 것이죠. 그만큼 일본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근대화 이후에는 우세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삼성이 커져서 일본의 기업들이 계속 후퇴를 하니 일본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일본의 자존심 문제를 얘기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천황에 대한 발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황이라는 존재가 일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국은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종교에 대해 이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무신교는 아니지만, 신앙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인의 정체성이 뭐냐고 물으면 제대로 설명 못합니다. 저는 일본인의 정체성은 천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할 대상, 우러러보는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많은 일본인들이 황태자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황태자의 딸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 마사코 ‘사마’ 아이코 ‘사마’라고 합니다. ‘사마’라고 하는 호칭은 존경심을 담고 있죠. 그 만큼 천황에 대해, 황실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본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입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지만 야스쿠니는 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죠. 일본 우파들에게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아베 총리도 1차 내각 때 참배를 못한 것을 “쓰우콘노 키와미(痛恨の極)”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번 8월 15일에는 아마

안 갈 겁니다. 지난번에도 장관들이 참배하러 갔죠? 항상 하는 말이 개인의 입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라는 사람이 “나는 오늘은 장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세계적으로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뿐입니다.

황성빈 그런데 황실에 대해 언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마’라는 존칭을 붙여서 말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심화되고 무의식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80년대까지만 해도 신문의 투고란 등에 ‘~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사마’를 붙여서 말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정근 그것을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 온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스로가 그 말을 하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 집안은 아주 교육을 잘 해주셨구나. 오지이 사마, 오바아 사마, 오토 사마, 오카 사마… 그런데 어린 아이한테 왜 ‘사마’를 붙여서 이름을 부르느냐”고 하면, 그때 처음으로 그 말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 정체성이 천황이며,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일본인의 자존심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자존심을 대변하는 천황을 전쟁범죄자라고 인정하는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황성빈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천황 근본주의’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사히 신문에 와카미야(若宮啓文) 전 주필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일본 사회나 일본인들의 천황에 대한 생각을 잘못 평가를 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좌파나 우파,

戰後70 日本

리버털이나 보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황 자신이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학교 교육에서 지금 천황제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또 미디어의 보도 역시 황실에 대해서는 셀레브 정도의 관심이지, 민족주의적인 군국주의 시대의 천황제 냄새는 전혀 안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견고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천황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로히토 천황의 전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접하면서, 당시의 일본사회가 굉장히 리버털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천황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디어는 천황가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사마'라는 극존칭을 사용하지만, 70년대 80년대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는 '상'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인자 저는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감각적인 반응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기에 천황에 대한 발언을 들어 문제시 하는 점은 조금 다르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천황에 대한 발언은 일본 국민에게 가장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알기 쉬운 코드였다는 생각이지요.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나라 반응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담화에 관해 검토해 보면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두 나라가 마음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양상이 더 심한듯합니다. 즉 논리적이라기보다 지극히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외교적인 힘이 능숙하지 않았다는 황 선생님께서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곳은 미디어일 것 같아요. 감정적인 반응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인재(李仁子) 도호쿠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준교수

박정진 이인자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천황 문제에 대한 서정근 교수님의 의견에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천황 문제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기보

다 필요에 따라 불리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천황의 표상은 달라져왔습니다. 그 중요성도 달랐고요. 현재 일본 사회에서 천황이란 존재가 부각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지적하신대로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층에는 약간 상처받은 심리 같은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내셔널리즘 내지는 우경화 등등을 얘기할 때, 너무 일본인의 본질론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개인과 집단의 행동이 일본에서는 강력한 민족주의로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국인론이 종종 등장합니다. 원래부터 한국인은 그렇다는 것은 한국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한국인들의 일본인론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서정근 천황 문제는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신화니까요. 신화는 논리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들끼리 천황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은 상관없죠. 천황이 어떻다 저렇다 그런 건 좋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쌍꺼풀 수술했을 때 우리끼리도 우스갯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인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좀 다른 기분이죠. 천황에 대해

戰後70 日本

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감히 한국인이 천황에 대해서 그렇게 말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 말을 직접적으로는 안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흥천 이명박 대통령이 천황에 대한 발언을 했든 안 했든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겠느냐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과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다. 미디어는 아주 세세한 부분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으로 본질을 변질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일부가 보도됨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본 사회에 각인시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의 한일 관계를 다루는 보도를 보면 일본 미디어의 순기능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일본 미디어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 보도 경향성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도에 충실하다 보면 정보원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원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거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편향되기 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 아사히신문이 위안부 보도에 대한 사죄와 보수주의자들의 비난 등이 이어지면서 자신들이 특정 문제를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런 경향이 일본 속에 하나 있다는 거구요. 미디어는 사회적 문제를 증폭(amplication), 즉 확대 재생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보수적인 여론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여론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일본 사회의 생활적인 부분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쓰케모노(야채절임) 사업에서 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퍼센트에 달합니다. 김치를 빼면 야채절임 산업이 유지되지 못할 정도로 김치가 일본 사회에 침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저항감의 소멸, 마늘과 마늘 냄새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주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부 정치가들의 우경적인 발언과 보수주의자들의 발언이 이전에 비해 증폭되기 쉬운 미디어 환경에서 구축됐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미디어의 건전성 약화는 권력에 의한 사회 통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생각할 때, 저는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부분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미디어라든지, 일본 정치인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후 70년, 한일 관계 50년을 조명해 보면 한국 정치와 일본 정치와의 관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주체에서 배제된 관계였습니다. 한국 시민과 일본 시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을 추가할 때, 현안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인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디어는 물론 힘이 강하고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미디어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동의하시잖아요. 그렇듯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미디어의 뉴스 소스를 선정하는 기준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의 남용은 사실주의로 간다고 하셨는데, 사실이란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고 그 모든 걸 보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수많은 숨겨진 것들, 그리고 나타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서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양쪽 사회에 많아지면 쉽게 획일화되지 않은 뉴스 소스가 생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성빈 여론을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획일화된 미디어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럼 그 획일화된 미디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그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천황제도 마찬가지구요. 천황제가 시스템인지, 이게 정말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논리와 일관성은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하겠죠. 견고히 제도화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문화와 시스템 두 측면에서 그 역동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세월호 사건...

일본 사회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가 한국을 바라볼 때...

황성빈 일본 사회의 한국 인식과 위안부 문제와 세월호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일본 사회에서 여론을 움직일 때 한국 팩터(factor)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인들의 집단적인 감정이 움직일 때 '타자'로서의 한국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제 전철을 탔는데 앞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이 타블로이드신문 석간후지(夕刊フジ)를 읽고 있었습니다. 1면에 실린 기사 제목은 '미국 한국에 분노(憤怒)', '방미 아베에 방해 획책'이었습니다. 사실 전철에 타면 전철에 걸린 중간지 광고에서 이런 슬로건같은 기사 제목을 보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대중신문 초창기의 '범죄'와 '스캔들'이 잘 팔렸다는 말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일본의 미디어에서는 '한국'은 잘 팔리는 소재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좋든 싫든 한국은 일본과 일본인의

‘의미 있는 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비해 바뀐 것은 이런 노골적인 ‘한국 폄하’가 90년대에는 지금과 같이 확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90년대에는 주요 미디어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 전쟁,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의견을 다루었고, 상업적 선정주의 언론에서도 논조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의견은 ‘정치혐오’의 의미가 담겨진 ‘정치적(political)’인 주장으로 해석되고, 또 ‘자학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는 자세가 현저합니다. 즉 주요 미디어에서는 무시하고, 선정주의 언론에서는 혼네(本音)라는 미명하에 ‘장사가 잘 되는’ 소재인 ‘한국 폄하’를 되풀이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에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학년 세미나 수업 때 한 오사카출신의 남학생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선생님, 그건 지어낸 얘기라고 하던데’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숨이 가빠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유학생 시절부터 10년 동안 만난 일본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90년대의 일본 사회의 분위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송 스튜디오에서 이런 주제가 다루어질 때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뭅니다. 아주 가끔 ‘정치적으로 올바른’ 또는 한국 측의 용어로 말하자면 ‘양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방송을 본 다음 날 아침, 또는 저녁에 전철을 타면 ‘한국 정부가 일본 수상의 방미에 대해 방해 공작을 획책한다’는 주간지의 광고나 석간신문의 기사를 읽게 되는 그런 일상이 2015년의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며칠 전에 제 세미나의 학생과 나는 대화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 사고 1주년이 되었는데, 그때 일본 정부가 구조활동의 의사를 비쳤는데, 한

戰後70 日本

국 정부가 그걸 거부해서 한국의 반일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깊은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미디어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일본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소식도 일본의 타블로이드 신문, 주간지뿐 아니라 주요 언론까지도 ‘고자질 외교’라며 일제히 비난 의견을 쏟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인터넷상에는 ‘박근혜 반일 발언’을 규탄하는 내용의 양과 그 집요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언론은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과 관련한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또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 대통령은 다시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하고, 그것이 다시 ‘반일 한국’의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반일 한국’은 바로 일본의 미디어가, 그리고 사회가 바라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질문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아니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박정진 일본 언론의 접근 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일본 언론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잠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걸 시민 사회 간의 교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상대편 사회에 대해 구사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동안 시민 연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은 있지만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공공외교가 많이 거론되어오긴 했는데요. 적어도 한국의 대일 외교에서는 사실 상 준비된 적도 없고 실행된 적도 없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일본 언론이 어떠한 질문을 할 지 예상을 했어야죠. 그리고 이에 대한 발언이 일

본 사회에서 어떠한 여파를 가질지도 사전에 분석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혀 없으니 대일 정책은 국내 정치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과 관련한 발언에서 고려되는 매뉴얼에는 물론 국내 비판 여론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마다 일본 사회의 한국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일본 미디어의 반응은 쉽게 예상됩니다.

이흥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본 지식인층의 비약적인 해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월 14일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의 착륙 실패 사고에 대해서 일본의 유명한 교수가 '한국 사회가 위협하다,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고 했죠.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양성 문제를 보더라도 그런 위협이 나타난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방송을 시청한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 사회가 구조가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구나, 실제 붕괴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현실 인식과 해석의 재생산이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인자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의 일본인들 반응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쓰나미 피해 지역 소재의 오오카와 초등학교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쓰나미로 교정에 있던 아동 74명(전교학생 108명)이 사망합니다. 선생님들도 10명(전체12명)이나 사망하는 아주 큰 피해였지요. 일부 유족들은 재해 시 아동 관리 태세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 세월호를 보는 입장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아이들이 희생당했다는 점을 들어 세월호 사건 유가족과 연대를 맺고 동병상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戰後70 日本

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한국은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잘못된 거였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느냐, 국가도 법도 회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 보상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부럽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도 인정을 안 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일본)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유족을 배려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재판을 하고 있는 소수 유가족의 의견이기에 특수한 경우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사회를 아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는 세월호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지요. 저는 아주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정근 아까 이데올로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대의 상황마다 정당성이라는 것도, 정통성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같은 방향을 보면 정당성이 되지 않습니까. 세월호는 그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는 것이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에 직면하면서 한국 사회가 보인 히스테리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비극에 숨이 막혀서 무언가로 막힌 상황을 뚫고 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주에게 화살이 가는 거고, 또 정부나 행정부에 화살이 가는 거죠. 총리가 분향소에 갔는데 그 분향을 거절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하는 일 때문에 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막아야 합니까.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성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문제는 한국 사회의, 어떻게 보

면 추모를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분열된 양극화 된 상황을 나타내고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일본 사회가 어떠한 한국 담론을 생산해내는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일본 사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일본이 구조, 구원을 제안했는데, 한국이 거부했다는 담론이 갖는 리얼리티는 굉장히 현실성 있게 일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부터 위화감이 있었던 것은 과연, 만약에 ‘그럼 도움을 받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연 일본의 해상자위대나 해상보안청의 특수부대가 구조가 가능한 시간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순식간에 날아와서 구조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를 구해내지 못한 것이 한국 해군이나 해양경찰에 구조에 필요한 설비나 능력이 없어서였을까? 일본에는 그런 능력이 있었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여러 번 물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도 납득할 답을 못 봤어요. 가장 가까운 기지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가 떠도 세월호의 침몰 장소까지 가는데 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구조라는 것이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할 수 있는게 아니죠. 가서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담론이죠. 이 담론의 갖는 리얼리티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일본의 선의(善意)를 완고하게 거절하는(頑なに断る) 그런 ‘반일 한국’의 존재인 것이지요. 그 문맥이 사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아시아나 사고 문제도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컨텍스트가 사전에 있기 때문에 그 담론이 현실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말하자면 세월호 사건이건 아시아나 사건이건 그 문제를 보는 일본 사회 또는 언론계에 팽배해 있는 한국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미군이 와서 했으면 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월호의 참사를, 그리고 일본 사회의 잔혹할 정도의 자기

戰後70 日本

순수성에 대한 믿음에 경악하며,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일본이 구조활동에 참여하면 마치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림 담론이 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그것은 말하자면 한국 사회를 보는 일본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후진적이고 야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100년 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전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콤플렉스’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전후의 무장 해제를 당하고 나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죠. 지난 번 중국 사천성에서 대지진이 있었을 때, 항공 자위대의 비행기가 구조 활동하는 것을 중국에서 받아들였다는 잘못된 신호가 일본으로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일본의 TV아사히의 보도스테이션 뉴스의 첫 보도는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이 개천의 물로 머리를 감는 모습과 함께 일본의 자위대 비행기가 이륙하는 영상이 나란히 방송되었고, 자막에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방송사가 바로 일본의 리버럴신문의 대표 격인 아사히신문의 계열이었기에 저는 일본 리버럴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식할 수 있었고, 또 바로 이것이 ‘슈퍼맨 콤플렉스’라고 느낀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일본 미디어의 보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평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근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성빈 자존심 문제요?

서정근 네. 일본은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피해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왜 안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로 손해 보는 것은 한국이고 덕을 보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오래된 죄책감의 반동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북한 납치 문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죄만 해왔는데, ‘아니 이거 봐라, 우리만 잘못된 것 아니잖아. 이 사람들도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존심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홍천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감성이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이 중국에 편승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현재 한국 정부가 제기하는 역사적 담론이 역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점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문제는 역사라는 측면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문제는 일상적인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서정근 위안부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보 측이 일본을 겨냥해 박정희시대, 3공시대에 대해 비판을 하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3공, 4공시대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비판이나 하면, 바로 한일 협정입니다.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라는 인정을 얻기 위해서 65년에 맺었잖습니까. 그래서 위안부 문제도 빠졌고, 독도문제도 빠졌고요. 이걸 했던 것은 우리나라 정부예요. 일본만이 아니라, 역사 문제도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된 건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어요. 그 타협이 정치적으로 틀렸다, 일본이 틀린 게 아

戰後70 日本

니고 우리가 잘못됐다, 틀렸다 하고 정면돌파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 없습니다.

황성빈 한일협정, 즉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서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공개했을 때, 일본 측의 반응이 아주 차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반일 노무현’, ‘한국이 무시카에시(蒸し返し), 즉 일단 결말이 난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다’,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지요. 또 2011년 8월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다시 말해 ‘(한국)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상 분쟁의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일본이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를 구제하도록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도 일본 정부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 당시 일본의 주요 언론은 일제히 ‘반일 프레임’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2012년 5월에 대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거부했고,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일제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도 일본 정부과 미디어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측, 특히 정부 측에도 생각해볼아야 할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 정부의 ‘무작위’를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의 반응은 진지하고 겸허한 성찰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본 측에 다시 화살을 돌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지…

서정근 중요한 것은 일본을 상대로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다뤄야 합니

다. 일본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자기반성이며 자기비판이며 우리 문제다 라는 의식입니다. 일본 사회에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황성빈 과거의 정부가 이룬 업적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전면 긍정하거나 전면 부정하니까 발전적, 통합적 계승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만을 던질 게 아니라 그 동안 두 나라가 쌓아온 것을 인정하면서 비판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적폐’ 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달성도 정파, 당파적 입장을 떠나서 인정하면 어떨까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일 두 나라 과거의 정부가 이룩한 성과적 측면도 인정하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어떨까요. 한일협정의 문제점도 일본에 다 뒤집어 씌울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무작위’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스스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자세를 보였더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의 정부와 언론이 생산해내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의 ‘반한, 혐한’의 화로에 가장 효과적인 연료를 부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흥천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안 줄 필요는 없죠. 예컨대 사실 한국에서 볼 때 일본 문제는 타자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내재적인 측면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진보주의자들도 반일에도 동참했는데요, 진보가 꼭 반일일 필요는 없는 거죠.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만이 한일회담에 대한 재정립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근 그 당시 일본에서 좌파를 중심으로 한일협정을 많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戰後70 日本

좌파가 우파로 전향한 경우도 많긴 해요. 한국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지금 이 시대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일본 사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황성빈 맞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퍼블릭 디플로머시’가 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시죠.

이흥천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를 보면, 외재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계라고나 할까요? 이러한 관계가 60년간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보다도 60년간 우리가 간과해 왔던 측면은 무엇인지, 내재적으로 아픔을 치유할 수는 없는지, 스스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무시해 왔던 부분들이 치유가 됐을 때 비로소 한국이 일본에 대해 다른 형태로 한일 관계의 현안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60년간의 논의를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만들고 새로운 조건들을 구축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 계승이라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전후의 역할들에 대해 인정해 줘야 합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DJ-오부치 서명에 대해서 인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서명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앞으로 얼마만큼 신뢰를 더 쌓아 나갈까. 이런 것을 양자 간에 더욱 어프로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어프로치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무라야마 담화라든지, 고노 담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DJ-오부치 담화는 양쪽이 같이 만든 담화이기 때문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더 진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

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에 모든 것을 일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전후 70년간 한국이 성장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일본 사회가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자기 아픔이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은 발버둥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세월호 때 한국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일본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 수소폭발이 일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일본 내 시민 사회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후쿠시마의 방사능 문제를 일본 내의 문제로 축소시켜 판단하려는 점에 분노했죠. 더 나아가 동경전력에만 맡기는 듯한 태도에 불만이 증폭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본이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비판하며 그것을 언론화 시켜 자신들의 아픔과 부끄러움, 자기합리화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의 반응, 우리나라의 반응을 편향적인 한 색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합니다. 일본의 반응을 단지 이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비판한다, 적대시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알기 쉬운 구조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과한 반응을 보이는데 대해 침착하게 살피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으로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정리한 획일된 이해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방향 지워진 이데올로기적 견해가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하게 살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근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일본 싫어하죠?” 그래서 “응 싫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국을 좋아하세요?”라고 묻

戰後70 日本

더군요. 그래서 “한국도 싫다”고 했어요. 제 희망은 개인적으로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의 관계는 자신을 억제하고 약간의 배려가 있으면 사이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 그것이 적용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지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진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변화하고 일본도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확답을 못하겠어요. 답을 못 찾겠지만 적어도 한국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일본문제는 일본이라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 문제를 통해 한국 사회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성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日本空聞)